

한국 속담과 러시아어 유사 속담 비교

김 엘리나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3 학년

지도교수: 김영경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Аналог и сравнение корейских и русских пословиц, используемые в Казахстане*

Автор: *Ким Э.В., Казах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ени Абылай хана (3 курс),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Резюме: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народному творчеству – пословицам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С глубокой древности существует особый жан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 фольклор, сохранивший социальный и 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предков. Пословицы – очень любопытный жанр фольклора, изучаемый и исследуемый многи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и авторам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народов мира, но во многом до сих пор жанр «пословица» остается кое в чём непонятным и загадочным. Пословицы написаны не одним человеком, а целым народом. Они отражают дух народа, стремление, идеалы, суждения о самых разных сторонах жизн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словицы и разного рода поучительные изречения появились задолго до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한글 – хангыль). Большинство пословиц появились в процессе живого народного опыта, извлеченного из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х наблюдением над жизнью, трудом и бытом.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е пословицы в основном связаны с земледелием, урожаем, «идеальным мужем» по конфуцианству. В пословицах ясно отображается мировоззрение и взгляд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Также как и в русском народном фольклоре, в корейском народном творчестве осуждается плохие, безнравственные поступки, человеческая глупость, жадность и другие отрицательные качества человека.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Пословица, народный фольклор, особенности пословиц, образ (стиль) жизни, народ, нация, фразеологизм*

주제어: *속담, 속담의 특징, 민간전승, 생활양식, 민족, 문화, 한자성어*

들어가는 말

각 나라마다 속담이 있다. 속담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의 특징, 생활습관과 태도, 조상의 역사적인 체험 등이 표현되는 민속의 예술이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숙하게 사용되는 속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속담들 중에는 의미가 유사한 러시아 속담들이 카자흐스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한국 속담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과 러시아의 유사한 속담의 의미와 속담들이 사용되는 상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속담의 특징

러시아어문 연구자 M.A. Mereshikova 는 "속담은 교훈적이고 필생의 관찰이고, 다양한 순간이나 상황에서 적용하는 말이다."라고 속담의 기원을 설명했다.

이러한 기원을 토대로 속담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속담은 굳이 가설처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속담은 논쟁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도 삶의 중요한 의미와 진실을 담고 있다. 속담에서 인간의 삶을 엿볼 수 있기에 속담의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다.

2. 한국 속담의 특징

한국 속담은 한글을 만들기 전부터 있어 왔다. 대부분 속담이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생겼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속담은 "옛적부터 전해 오는 민간의 격언"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다시 격언(格言)을 찾아보면 "속담 등과 같이 사리(事理)에 꼭 들어맞아 교훈이 될 만한 짧은 말토막"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 속담 중에는 유교의 윤리에 대한 속담도 많다. 속담에는 그 나라의 문화나 의식, 전통 등이 포함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속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옛날부터 한국은 농업 국가였다. 농업을 강조해서 이와 관련된 속담이 많다. 예를 들어 "부지런한 농사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는 부지런한 농민에게는 좋은 땅과 나쁜 땅이 따로 없다는 의미이다. "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얼홀 굶는다"는 한해 농사의 첫 시작인 봄철에 씨를 뿌릴 때 게으름을 부리면 그만큼 농사가 안되어 얼홀을 굶는다는 뜻으로 봄철 농사가 매우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둘째, 한국 속담과 수수께끼와는 유사점이 많다. 예를 들어 "두 형제 산마루를 두고 서로 보지 못 하는 게 무엇이나?"와 같은 수수께끼는 속담처럼

럼 사용하기도 한다. 친한 사람들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셋째, 한국 속담에는 조상들의 효의 사상이 담겨 있다. 한국인들은 부모가 살아 있거나 돌아가셔도 존경해야 한다는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산소 등에 꽃이 폈다"는 조상의 무덤 위에 꽃이 피었다는 뜻으로 자손이 번성하고 부귀공명하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외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 효자" 등 효와 관련된 속담들이 많다.

넷째, 한국 속담도 전통적 관습이나 생활양식을 담고 있다. 예컨대 "굽은 나무 선산 지킨다"는 자손이 빈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버리나 줄기가 굽어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제 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가야 하지만 몸이 약한 아들이 군대에 갈 수 없어서 부모를 돌보게 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다섯째, 4-5 세기 경에 들어온 불교는 한국 민족의 중요한 종교가 되었다. 특히 불교가 점점 토착화되면서 한국적 특성을 지닌 종교가 됨에 따라 불교적인 속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마음이 지나치게 어질고 순한 사람을 이룰 때 사용한다. "부처님 껌이 나면 대를 서겠네", "부처님 살찌고 과리하기는 석수에게 달렸다" 등이 불교와 관련된 속담이다.

여섯째, 한국은 옛부터 전쟁이 많았다. 그래서 우국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살되 나라를 위해 살고 죽되 나라를 위해 죽어라", "나라가 망하면 충신이 옥을 본다", "나라가 편해야 신하도 편하다", "나라 없는 사람은 집 없는 개만 못하다" 등이 애국심과 관련된 속담이다.

일곱째,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인과응보의 의미가 담긴 속담들을 자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누워서 침뱉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등이 있다.

여덟째, 한국은 16-17 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민족문화, 국민의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당시 여러 학자들이 속담과 민간전승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속담을 연구한 시초는 홍만전으로, 그는 17 세기에 <순오지>라는 책에 수많은 속담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각 속담의 뜻풀이를 함께 실고 있어 조선시대 속담의 실태를 보여주었다. 17 세기 초 이익의 <백언해>, 정약용의 <이담속찬> 등이 고유의 속담을 수록하였다.

이상으로 한국의 속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 보았다.

3. 한국과 러시아 속담의 유사점과 차이점

러시아 속담도 마찬가지로 민간전승이라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도 카자흐 속담이 있지만 러시아 속담을 많이 사용한다. 러시아 속담과 한국 속담은 다르지만, 유사한 부분도 많다. 인류의 의식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속담과 한국 속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속담에서 나쁜 사람을 표현하는 동물은 돼지와 늑대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늑대에 잡혀 먹힌다 해도 숲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속담은 아무리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 해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한국에서 돼지는 복과 부의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 속담뿐 아니라 다른 민간전승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은 두꺼비이다. 두꺼비는 골치덩이인 사람을 표현하는데, 러시아 속담에서는 여우가 그러한 비유를 담당한다.

둘째, 러시아 속담에 돼지, 거위, 곰, 여우 등에 대한 것이 많다. 러시아의 우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동물들이며, 자연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속담에 자주 언급되는 동물들은 호랑이, 용, 돼지, 개 등이다. 한국 신화에서 호랑이는 성스러운 산신령으로 등장한다. 동아시아에서 용과 호랑이는 신성한 동물이다. 용과 호랑이는 다양한 민간전승에서 위대한 인물을 대표한다.

셋째, 두 나라 속담에 신체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입이 열개 라도 할 말이 없다"는 너무 미안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뜻이며, "말에 뼈가 있다"는 어떤 일에도 반드시 숨은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눈 뜬 장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등 신체와 관련한 속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넷째, 한국 속담에는 한자성어(고사성어)도 포함된다. 많은 러시아 속담이 한자성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석이조"(한 행동으로 두 가지를 얻다)는 러시아 속담에서 새 대신에 토끼, 돌 대신에 충을 사용하여 "하나의 사냥총으로 토끼 두 마리를 죽인다"로 표현된다. "권선징악"(착한 사람들이나 행위가 언제나 나쁜 것을 이긴다)이나 "전화위복"과 같은 한자성어도 러시아어 속담에서 유사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러시아 속담에서도 한국 속담과 유사한 예들이 많이 있다.

4. 한국과 러시아의 유사 속담 비교

번호	한국 속담	러시아 속담
1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Исправить сара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украли лошадь (말을 도둑맞고 나서 헛간을 고친다)
2	도둑에게 열쇠를 맡긴다	Доверить козе капусту (염소에게 양배추를 맡긴다)
3	호랑이의 눈썹을 잡는다, 하늘에서 별 따기,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	Сорвать звезду с неба (하늘에서 별을 따다) Искать иголку в стоге сена (건초에서 바늘을 찾는다)
4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Подливать масло в огонь (불난 것에 기름을 더한다)
5	고생 끝에 낙이 온다	Как бы ни было сейчас тяжело, не сдавайся, всё получится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6	가재는 게 편	Одного поля ягода (그들은 모두 한편이다)
7	금강산도 식후경	Война войной, а обед по расписанию (전쟁이 나도 식사는 제 때 해야 한다)
8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Давным-давно (옛날 옛날에)
9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Слово не воробей, вылетит, не поймаешь (언어는 참새가 아니지만 날아가면 잡을 수 없다)
10	개살구도 맛 들일 틈	Человек ко всему привыкает (사람은 모든 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11	소 귀에 경 읽기	Метать бисер перед свиньями (돼지 옆에 구슬을 던지다)
12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И на старуху бывает проруха / Самые лучшие допускают ошибки (최고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13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Яйцо курицу учит (계란이 닭에게 가르친다)
14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Какой привет, такой ответ (상대방에게 어떻게 인사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진다)
15	개천에서 용 난다	Из грязи в князи (처음에는 구차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왕이 되었다)

16	작은 고추가 더 맵다	Мал да удал (너무 작지만 강대한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약하게 보이지만 결국에 남들보다 더 잘 한다는 뜻)
17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Лучше близкие соседи, чем дальн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먼 곳에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집이 더 좋다)

맺는 말

속담에는 민족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다. 속담을 통해서 민족성과 사상을 알 수 있다. 속담은 다양한 상황에서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속담을 잘 사용하면 어휘력이 풍부해진다. 또한 속담을 통해 의미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 속담에도 동물, 신체 등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들이 많다. 신화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속담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민족들이 가지는 인식과 윤리의식은 비슷하다. 나쁜 행동을 배격하고, 좋고 친절 한 사람이 결국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교훈을 강조한다. 속담은 민담처럼 우리를 일깨워 주고 올바른 행위를 알려 주며, "어떠한 행동이 올바른가?"라는 질문에 모범적인 답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참고문헌

1.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издательство "Кочевники" 2002 г.) // <동양 민족의속담>, 알마타: 민음사 <코체브니키>, 2002, 159с.
2. <http://www.vseposloviy.ru/>
3. <http://www.mista.ru/pogovorki.htm>
4. <http://millionstatusov.ru/poslovitsi/nar/kr/page-2.html>
5. <http://sayings.ru/world/korean/korean.html>